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왼쪽)이 18일 오전 영국 런던 엠티 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나이절 레오코커를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 핫스퍼의 이영표(오른쪽)가 17일 자정(한국시간) 맨체스터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하템 트라벨시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99일만에 복귀...6분 출전

발목 부상이 완쾌된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99일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공식 복귀전을 치렀다.

박지성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엠티파크에서 열린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42분 가브리엘 에인세 대신 교체 출전해 6분 여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9월 10일 토트넘 핫스퍼전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고 재활 훈련에 몰두해 온 박지성은 지난 7일 맨체스터 시티와 2군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을 뛰기도 했지만 1군 공식 경기에서 출전한 건 99일 만이다.

## 이영표 풀타임 활약 토트넘 3연승 견인

박지성은 그러나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영국 축구전문 인터넷 매체 '스카이스포츠'도 박지성에 대해 '뭘 보여주기에 시간이 없었다(No time to do anything)'는 평가와 함께 평점 5점을 매겼다.

맨유 후반 20분 웨스트햄 미드필더 나이절 레오코커에게 내준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해 0-1로 패하며 지난 9월 24일 레딩전 무

승부 이후 이어진 1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마감했다.

'조용이' 이영표(29·토트넘 핫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 90분 풀타임으로 활발한 오버래핑을 선보이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영표는 이로써 지난 6일 미들즈브러전 이후 3차례 연속으로 정규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면서 벤투아 아소 에코토 대신 주전 자리를 굳혔다.

토트넘은 전반 16분 칼럼 테브포트의 선제골에 이어 전반 24분 톰 허들스톤의 추가 골까지 터지며 후반 19분 한 골을 만회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3연승을 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국내 프로배구 흥행대박 예고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프로 종목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땀던 배구가 겨울리그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는 23일 2006~2007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아시아안게임 2연패를 이룬 남자 배구 대표팀에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야구와 축구, 농구가 '노메달' 부진을 겪은 반면 배구가 유일하게 프로 구기 종목의 자존심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다.

### AG 2연패 효과 극대화위해

### 구단 관중동원 마케팅 준비

아시아안게임에서 맹활약했던 이경수(LIG)와 신진식(삼성화재), 후인정(현대캐피탈) 등 간판급 선수들이 시즌 개막과 함께 코트에 복귀하면 배구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각 구단도 남자팀을 중심으로 미디어 테이블을 잇따라 열어 '우승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으로 관중 동원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배구 행정을 총괄하는 KOVO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미 현대건설과 13억원의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해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로 대회명을 확정했고, KBS와 15억5천만원 규모의 방송 중계권 계약도 마쳤다. 중계권 계약료는 지난 해 10억원보다 5억5천만원이 많다.

중계 횟수도 정규리그 전체 150경기 중 130경기 이상을 약속받았고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결정전 등 포스트시즌 전 경기가 지상파 KBS와 케이블방송인 KBS N 스포츠, KBS 조이 등을 통해 중계된다.

## AG핸드볼 편파판정 국제연맹에 제소키로

###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핸드볼협회가 도하아시안게임 남자 핸드볼에서 나타난 중독 심판의 편파판정을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소할 계획이다.

핸드볼협회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등에서 이번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번 주 내로 편파판정에 대한 보고서와 경기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IHF에 제출해 심판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핸드볼협회는 이와함께 내년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심판 선임 및 배정을 IHF가 관장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 도하 아시안게임 결산 ② 화려한 외형·영성한 내실

# 2조5천억원 투자 불구 시설·선수 안전 '엉망'

'2조 5천억원의 축제'

2006 도하아시안게임 대회조직위원회(DAGOC)는 걸프 연안국에서 처음 열린 제15회 하계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데 무려 28억달러(2조5천821억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우리 국가 예산의 2%가 넘는 이 돈은 100% 국고 지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최국인 카타르 알 타니 왕가에서 전액을 냈다.

물론 이 재원이 순전히 대회 경비로만 쓰인 건 아니다. IT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군데군데 쓰였기 때문에 카타르 국민이 장차 향유할 수 있는 몫도 남아있긴 하다.

기 때문이다.

중동에 흔치않은 비가 대회기간 내내 오락가락하며 연이은 사고가 터졌다.

29만m<sup>2</sup>의 위용을 자랑하는 지상 최대 돐구장 아스파이어홀은 이를 내린 비로 천장이 뚫려 물이 새는 망신을 당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명 사고였다. 비가 내린 가운데 강행한 스타 종합마술에서 한국 선수단의 고(故) 김형철 선수가 불의의 낙마 사고로 사망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대회조직위는 또 인프라 운용, 경기 진행, 홍보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용병 인력을 썼다.

### 빛속 경기 강행 김형철 선수 낙마 사고 초래

### '지상 최대' 돐구장 천장 뚫려 물 새는 망신도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이 정도 거금을 쏟아부은 사례는 없었다.

카타르는 도하를 중동의 '스포츠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가득차 있다. 내심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의 향도 있어 이번 대회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셈이다.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성대한 개회식은 과거 어떤 종합 이벤트의 오프닝보다 화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눈부신 외형과는 달리 대회 운영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속된 강점'이란 표현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개회식부터 '사고'가 났다. 열 여덟살 카타르 왕자가 말을 타고 성화를 불어 갈채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개회식 직후 45개국 선수단은 장대비를 맞으며 발발 떨어야 했다.

후속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

DAGOC 직원도 70% 이상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 경험을 지닌 호주 출신 요원 등 외국인들이었다.

카타르 도착 인구가 25만에 불과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재 손으로 치른' 잔치는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선수까지 용병으로 싸웠다는 점이다.

특히 육상팀 '오일달러' 강풍이 트랙과 도로를 강타했다. 대회 막판 핸드볼에서 불거진 편파 판정도 도가 지나쳤다. 한국 남자핸드볼이 어처구니없는 7점의 희생양이 됐다.

카타르가 금메달을 따낸 스타마도 개최국 선수에게만 마자마술 연기 순서를 마이크로 불러주는 혼극을 벌였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평가할진 몰라도 40억 아시아인의 눈에 비친 도하의 축제는 '화려함과 영성함'이 공존한 이벤트로 남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9일(화) ▲세계학생유도선수권(14 : 10 - KBS1)

▲프로농구(전자랜드-KTF)(18 : 50 - X-sports - SBS스포츠)

20일(수) ▲칼링컵 축구(리버풀-아스날)(04 : 40 - KBSN Sports)

#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제부터... 가르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제부터... 가르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19일(화) ▲세계학생유도선수권(14 : 10 - KBS1)

20일(수) ▲칼링컵 축구(리버풀-아스날)(04 : 40 - KBSN Sports)